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ww.kicce.re.kr	보 도 자 료		
	작 성	담당부서	출판홍보팀
		담당자	김혜진 팀장(☎02-398-7729)
	배 포	담당부서	출판홍보팀(☎02-398-7740)
		일 시	2026년 7월 21일(화)
보 도 일 시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통합이 곧 질적 통합은 아니다"

해외 13개국 유보통합 비교… "무엇을 통합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정렬할 것인가가 중요"
 육아정책연구소 2026 「해외육아정책리포트」 03호,
 「유보통합 어떻게 정렬할 것인가 해외 유형별 비교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발간

< 주 요 내 용 >

-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2026 「해외육아정책리포트」 제3호 「유보통합, 어떻게 정렬할 것인가: 해외 유형별 비교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발간하였다. 이번 리포트는 OECD 통합형 운영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의 유보통합 시스템을 비교·분석하고, 한국 유보통합이 나아가야 할 질적 전환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번 리포트는 해외 주요국의 유보통합을 단순히 통합 여부로 비교하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법·재정·교육과정·평가의 정합성과 제도 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완성형 일원화 모델', '분리·협치형 정합 모델', '전환기 정렬 모델'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유보통합의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OECD 통합형 운영 국가를 중심으로 13개국을 비교한 결과, 유보통합은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법·재정·교육과정·평가가 얼마나 정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타났다. 스웨덴·핀란드·뉴질랜드 등은 완성형 일원화 모델, 잉글랜드·스코틀랜드는 분리·협치형 정합 모델, 대만·루마니아·이스라엘·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전환기 정렬 모델로 분류되었다.
- 분석 결과, 행정 통합 자체가 질적 통합을 보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 높은 ECEC 체계를 갖춘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법·재정·교육과정·평가가 하나의 철학 아래 정합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며, 국가의 공통 기준과 지역의 자율성, 정책의 일관성과 평가의 독립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 한국은 2024년 보육업무의 교육부 이관을 계기로 '전환기 정렬 모델'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하였다. 향후 유보통합의 질적 전환을 위해서는 법제·재정·교원 자격·교육과정의 동시적 정렬, 평가 기능의 독립성과 학습형 환류체계 구축, 국가 표준성과 지방 자율성의 균형, 취약영역에 대한 선제적 정책 설계, 현장 실천을 지원하는 연수·자료·컨설팅 체계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연구책임자인 박창현 연구위원은 “13개국의 경험은 행정 통합이 곧 질적 통합을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한국 유보통합의 다음 과제는 이관의 완료가 아니라 법·재정·자격·교육과정·평가를 하나의 철학 아래 정합적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양적·구조적 개선 위에 정합성·자율성·환류성이 함께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한국 유보통합이 질적 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 해외육아정책리포트 원문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26년 해외육아정책리포트 03호 파일 1부. 끝.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상세문의: 영유아정책연구실 글로벌협력연구팀 박창현 연구위원 02-398-7789
 배포부서: 기획조정본부 출판홍보팀장 김혜진 02-398-7729
 출판홍보팀 주송희 책임행정원 02-398-7740